

월간 PIGHEAD LAB

피그헤드랩



월간 피그헤드랩은 건강한 삶과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은
잡지雜誌입니다.

37호

2025.10



ISSN 3059-0260

이채연_군산 북페어 참가 후기와 옛 친구와의 만남

서른네번째 원고

X_ 그 곳에 가고싶다 : 바다 (2)

열다섯번째 원고

김혜현_ 등지와 엄마의 성경책

두번째 원고

김희진_ 같으면 완전히 같다

스물네번째 원고

한량윤씨_철거 -벽과 대청마루

다섯번째 원고

군산 북페어 참가 후기와 옛 친구와의 만남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지난 8월의 마지막 주말 군산 북페어에 병렬창작클럽(Parallel Practices, P.P)²팀으로 참가했다. 여성 시각예술인 모임에서 북페어 참가를 위해 8명의 작가가 모여 결성한 팀이다. 8명의 작가가 온라인상에서 만나 기획안을 썼고 참가신청이 통과 되어 참가하게 되었다. 실제 행사장에는 나를 포함한 4명의 작가가 나왔다.

북페어는 이름 그대로 책이 주인공인 행사다. 그래서 대개는 활자 책이 주를 이루고, 그림책 사진책 등등이 그 다음으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팀이 가져온 것들은 미술작업을 하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책과 굿즈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미술작업 먼저고, 그 다음이 책인 셈이다. 한두명을 제외하고는 책제작에 관해서는 프로가 아니고, 책의 A부터 Z까지 다 순수 작업했다. 정말 순수한 독립출판이다. 이런 점은 다른 부스와는 차별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번 군산 북페어에서는 출판에 관해서는 프로페셔널한

2 · 병렬창작클럽 Parallel Practices, P.P. 병렬창작클럽은 다양한 주제 의식을 가진 여성 예술가들의 위계 없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시대를 공유하는 여성 예술가 8명의 개인 창작 출판물을 큐레이션 하여 선보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 된 ‘병렬창작클럽’의 아티스트북은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텍스트와 이미지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내밀한 개인의 서사를 공적 영역으로 발화하고 확산시키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성 작가가 감각하는 현재의 이슈와 미래의 길을 지면에 담아 커다란 담론부터 작디작은 소곤거림까지 아우를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제공합니다. 혼자였다면 작게 들렸을 목소리가, 병렬적 연대로 모였을 때 더 큰 울림이 됩니다. 서로 다른 조건과 감각을 가진 여성들이 함께 부스를 만들고, 또 누군가에게 용기와 영감이 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사진1_군산 북페어 전경, 관람객이 많았다. 자세히 보면 우리 부스의 나의 장식품 - '초록빛이 나는 파'를 발견 할 수 있다.



부스와 아무리 독립출판이라고 해도 사업자(?)스러운 부스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전문 출판팀 틈에서 어쩌면 우리팀은 독립출판 정신을 가장 잘 지킨 부스이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데 이 말은 책 판매와는 가장 거리가 먼~부스라는 뜻이기도 하다. 독립창작의 정신은 돈 보이나 완성도와 인지도는 아무래도 떨어져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다. 우리의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 미술작품도 팔기 어려운데, 책까지 팔려면 얼마나 더 힘이 들겠는가!

북페어 참가

북페어에 팀으로 참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 참여한 북페어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될 것 같다.

2023년 개인전을 하면서 그림과 그에 따른 작업노트를 엮어 책 만들었다. 미술 전시는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 같은데, 전시보다는 대중적인 매체이자 책이라는 물건으로 만들면 여러 번 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내 작업을 조금 더 쉽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만들고 보니 책을 내 놓을 곳, 즉 판로를 찾기가 어려웠다. 내가 만들어 낸 책 정도면 독립서점에 입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순진하게도!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 간단하게 생각한 것 같고, 다른 작가들도 하나까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 거기다 내가 이름있는 작가도 아니고 내 책이 그렇게 좋은 책도 아니니까 입고가 잘 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역시 세상에 만만한 일은 없었다. 그래도 일단 만든 책이고 내 작업, 내 새끼 이니까, 책임을 지고 알려줘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직접 들고 나가서 팔아 보기로 했다. 일단 눈에 보인 북페어에 지원을 했고, 운이 좋게도 통과 되었고, 부스테이블에 책만 내놓기에는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굿즈를 만들었고, 책과 굿즈를 어떻게 세팅 할지 고민했었다. 마치 전시를 준비 하는 것과 같았다. 처음 만들어 본 굿즈 제작은 어렵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다. 거의 수작업으로 만든 굿즈여서 공예와 입체작업 하는 듯 해서 학교 다닐때 했던 입체 작업이 떠오르기도 했고, 그리기의 즐거움과는 다른 만들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에 관해서

쓰자면 할말이 많지만 글의 주제가 바뀌져 버릴 수도 있어서 여기 까지만 쓰겠다.

첫 북페어 참여로 단독부스 였다. 미술 개인전처럼 단독 참여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북페어가 시작되고 다른 부스들을 보니 단독을 참여하는 경우는 책과 굿즈가 많거나 베테랑 부스였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부스를 반절로 나눠 참여 하거나 팀을 이루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북페어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내가 경험한 바는 이랬다. 나는 홀로 나의 빈약한 부스를 지키며, 주변에 짝을 이룬 나온 팀이나 팀워크를 보여주는 부스나 빠방한 재미거리로 테이블을 채운 부스들이 부러웠었다. 멋도 모르고 일만 벌린 건 아닌지..... 그동안 미술계 안에서만 사고한 우물 안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만들어 놓은 책과 굿즈는 어떻게 할지.... 온갖 고민거리들이 뒤죽박죽 엉켜 내 머리 속에서 포화 되었다.

북페어에서 판매자로 있어보니 관객객일때와는 보이는 것이 달랐다. 그동안 내 취향과 작가의 입장 위주만 봤다는 것이다. 사실 내 취향을 보여주기 위해 작업 하는 것이긴 하나 이렇게 판매와 홍보를 위한 마켓(페어)에 나왔다면 대중(관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뻔한 생각이지만 이게 잘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는다.

썩썩한 첫페어의 추억을 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팀으로 북페어에 나가고 싶었다. 마침 여성 예술인 커뮤니티에서 팀으로 북페어에 나가 보자는 글을 발견했고, 감히 용기를 내어 같이 하고 싶다고 글을 올렸다. ‘감히’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내가 다른 멤버들보다 나이가 대략 10살 이상 많았기 때문이다. 꼰대처럼 보일지, 분위기 흐리는 건 아닌지, 내가 눈치 없이 헛소리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조심스러웠다.²

2. 나는 사소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고 상상이 좀 지나친 N유형이다.

북페어를 마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좋은 작가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우리 부스는 물론이고 다른 부스에서 배울 점이 너무 많았다. 고자극이어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 이 배움을 다 소화 흡수하여 내 작업으로 드러나면 좋겠지만, 그럴 능력과 멘탈이 약하다. 그러나 일단 눈으로 스캔은 했으니 어쨌든, 뭐든, 도움은 되겠지 싶다.

아 그리고 처음으로 장거리 운전으로 낮선도시에 갔다 왔다. 지금까지 집근처인 충북 진천 주변과 익숙한 지역만 다녔다. 먼혀 떠나는 26년, 본격적으로 운전한지는 3년정도 되었지만 운전엔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졸보인 내가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군산에 가겠다고 한 것은 엄청난 용기를 낸 일이 었다. 대개 군지역이 그렇듯이 우리동네도 대중교통이 열악하다. 다른 도시로 가는 대중교통 직행은 드물다. 길을 돌아서 가거나 환승을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책과 굿즈를 가져 가야 하는데.... 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운전도 미숙한 내가 괜히 북페어 참여한다고 했나? 하고 후회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약속한 일이니 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후회보다 더 커서 ‘운전 할 결심’으로 이어졌다. 차에 기름을 만땅으로 채우고 껌과 사탕, 커피를 준비했다. 나는 할 수 있다! X3 는 주문을 외우고 심호흡을 하며 운전대를 잡았다. 인터체인지를 지나치는 등의 몇번의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무사히 도착했다. 감격스러웠다. 내가 너무나 기특했다. 이제 어디든 갈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다. 서울, 경기, 부산 같은 인구가 밀집된 곳은 빼야겠다.

책 판매 어땠는가?

목표는 오로지 책과 굿즈 판매한 돈으로만 가족과 함께 고기 외식 이었다. 그러나 고기를 맛보기에는 완전 부족한 결과였다. 우리 가족 짜장면 외식정도는 가능 할 것 같기도 하다. 여기에 재료비는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그런 걸 생각할 여유는 없다. 고기 외식은 참 꿈은 참 야무진 꿈이 었을까? 언젠가는 이루고 싶다! 화로에 양고기를 구워 먹는 식당에서 말이다.

그래도 멋진 책과 굿즈들이 널리고 널린 이곳에서, 한뼘정도 작은 자리의 소박한 나의 책과

굿즈를 봐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책 판매 대금 입금 한다는 연락이 왔다. 북페어 판매 대신 이걸로 고기 먹어야겠다! 양고기 말고 돼지고기로.

군산 북페어에서 만난 사람

군산에 가기 전, 20대 같이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가 군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연락했었다. 몇 년 전 남편상을 치르고 아들과 살고 있는 친구의 안부가 궁금 했었다. 장례식장에서 보고 그후로는 만나지 못했다.

사회생활에서 만난 인연들은 대부분 흩어지기 마련인데, 이 친구와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씩 안부가 궁금했다. 똑 부러지게 일 잘하고, 잘 디자인 된 문구류나 감성이 깃든 물건을 좋아한 친구였다. 나는 미술 전공자로서 잘 만들어진 오브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뭐든 잘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아서 호감을 느낀다. 한창 고민 많던 20대에 한 공간에서 같이 일했다는 것은 청춘의 시간을 같이 공유한 사이로 추억이 길게 남는 것 같다. 둘 다 일을 그만 두면서 연락이 끊어졌지만 나중에 어찌하다가 sns로 안부를 알게 되었는데, 우리 둘 다 동갑내기 아들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냥도 반가운데 육아 동지라니! 더더욱 반가웠었다.

이 친구가 페어로 찾아와 주었다. 너무 고맙고 반가웠다. 이게 참 얼마만인지.... 거기다 친구의 아들도 같이 왔었다. 오더라도 친구만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아들이 같이 와서 더욱 더 반갑고 놀랐었다. 쪼꼬미 아이였는데 이제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어서 두번째로 놀랐었다. 역시 남의 집 아이는 참 빨리 크다! 중학교 2학년. 한창 사춘기의 정점에 있는 아들이 엄마와 함께 나왔고, 거기다 엄마 친구를 보러 나왔다는 것에 세번째 놀랐었다. 나 역시 같은 나이의 아들이 있는 엄마로서 이런 일은 무척 희귀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놀람과 감동 더 있었다.

이 아이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아이의 슬픔을 공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아이를 그려서 선물로 보내 주었다. 가족 말고도 타인의 공감이 있어야 조금 더 견고한 공감과 위로가 될 것 같았다. 아이는 자기를 그려 준 사람이 근처에 왔으니까, 이럴 때 꼭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나를 보러 나오기 위해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나왔다고 들었다. 한창 친구가 제일 중요한 나이 일 텐데, 이 아줌마를 보러 와 주다니.... 고마웠다! 눈가가 촉촉해 젖었다.

군산에 다녀온 후로 성장한 아이의 모습과 내가 그린 아이 얼굴이 오버랩 되어 떠오른다.

아무래도 이번 군산행은 이 친구 만나기 위한 운명이라서 였나 싶다. 

그림1_00에게, 한지에 분채, 2017, 부분 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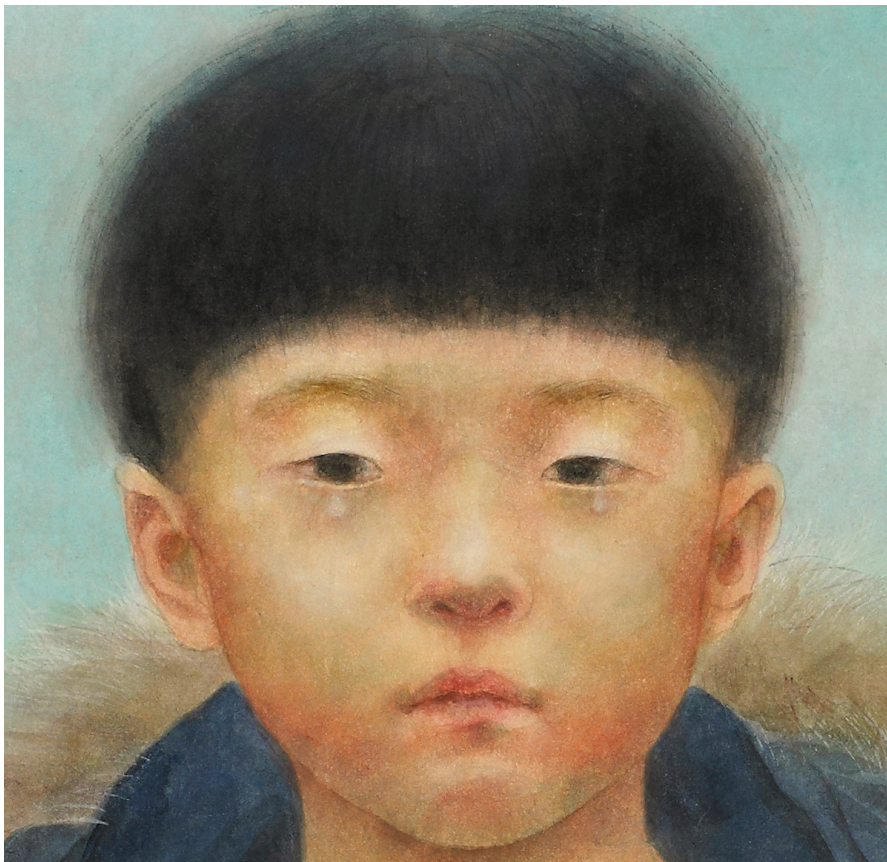


사진2_우리 부스에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나.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초상권 보호를 위해 지웠다.





그 곳에 가고싶다 : 바다 (2)

X

작가 & 전시기획자

올해는 바다에 많이 못 들어갔다. 불안정한 삶과 생계로 일을 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라 정신이 없었다.

내 소원이 언젠가 바다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그게 언제 될지는 아마도 우주만 알 것이다. 난 사실 오늘 죽던 10년 뒤에 죽던 상관은 없다. 혹자는 결혼을 아직 못 하고 아이도 없어서 죽음을 가볍게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삶은 그냥 물 흐르는 듯이 살아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모두 각자의 카르마를 가지고살아가기에 모든 생명체마다 카르마를 나름대로 소화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번뇌와 욕망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욕망은 모든 것을 “삶”으로 몰아넣으며 맘을 비우지 못해 심지어 죽음조차도 힘들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막상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하면 이 죽음에 관한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

오직 수영하기에 바빠서 육체의 숨 가쁨에 몸을 맡긴다. 난 아직 죽을 때는 아닌가 보다.

바다 수영을 하면 해파리의 공격을 자주 당한다. 혹자는 따끔이라고 얘기하는 바다 단각류 때문에 여름에 알레르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난 따끔이에 전혀 아무렇지 않다. 오히려 나와 해파리는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거 같다. 몇 년 전 창원에 살 때 한 겨울에도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수영을 자주 했었다. 그때 해파리 시체가 내 몸에 닿았는지 한 번은 겨드랑이가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하게 고통을 느꼈다. 해파리는 내 피부에 채찍 자국을

내며 빨갭게 타올랐다. 뜨거운 물에 몸을 씻는 데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지만 이를 뒤도 계속 수영을 했었다. 의사가 하지말라는 데도 수영을 해서 상처가 한 달 내내 갔다. 그리고 자국은 일 년을 넘게 머물러 있다 사라졌다.

해파리에 여름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종류도 엄청 많고 눈에도 안 보이는 해파리도 있고 해파리는 잘려져도 시체가 동동 떠다녀서 일 년 내내 있다고 봐야 한다. 다 같이 수영하러 들어갔는데 해파리는 나한테만 오는 지 이상하다고 느꼈다. 난 심지어 필리핀에서 다이빙할 때도 쏘였다. 중요한 것 나 혼자만 물리고 다른 사람은 잘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커서 보이길래도 하는 데 안 보이니 영 알 수 없다. 해파리가 뇌가 없어서 생각을 못 한다고 하는 데 난 정말 믿고 싶지 않다. 유독 나한테만 자주 오니 이들도 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난 언젠가는 영화 그랑블루의 주인공처럼 원해서 프리다이빙으로 사라지고 싶다고 생각한다. 립 베송이 잠수사였다가 폐에 문제가 생겨서 직업을 바꾸면서 영화감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영화 그랑블루가 그래서 그의 첫 작품으로 만들어졌다고 들었다. 중학교 때 영화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난 돌고래와 인간의 우정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잠수하면서 물고기의 눈과 행동을 읽게 되면서 그들도 날 보고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옆에서 날 신기한 듯 뭉뚱뭉뚱 쳐다보는 물고기는 날 친근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사냥하는 잠수사가 그 땐 확잡아서 먹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그의 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난 “교감”을 중요시하는 무식하고 여린 인간이지라 굳이 내가 말라 비틀어가서 죽지 않은 이상은 사냥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결국 날 뭉뚱뭉뚱 옆에서 와서 쳐다보고 가는 물고기를 몇 번 경험한 이후 개와 고양이도 각자 성격이 있는 것처럼 물고기도 다 성격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꽃게가 육지에서 날 보면 얼른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과 그리고 잡았을 때 날 깨물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보면서 난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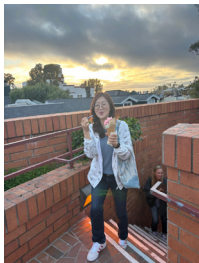
37. 2025.10

모든 생명체는 눈과 눈을 마주칠 때 서로의 영혼을 볼 수 있다고 알게 되었다.

수년 전 엘레오노르와 내가 눈을 서로 마주쳤을 때처럼 말이다. 🐙







김혜현

4년차 갤러리스트

등지와 엄마의 성경책

9월에는 두 번의 수술을 받았다. 작년 여름에 진단받았던 자궁근종과 피지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20일 간격으로 수술이 잡혀 난감하기도 했는데, 사실 7월에 진행됐어야 할 시술이 실패하면서 다시 잡은 날짜가 9월 초가 된 것이다. 큰 병은 아니었기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지만, 연초부터 계속 이어진 하혈은 정말 지옥 같았다. 그때 성경에서 읽었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에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할 수 없었지만, 나 역시 2년 이상 고생하다 보니 이제는 몸으로 그 경험을 알게 되었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출혈이 계속되면 통증도 있지만 무엇보다 몸에 기운이 없어져 대부분의 시간을 무력감 속에서 버텨내야 한다.

그런 몸을 이끌고 작년에는 지원사업부터 매달 이어지는 초대전까지 해내야 했고, 미국으로 집과 갤러리 짐을 혼자 정리해 보내야 했다. 연말에는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7년간 살던 집과 4년간 운영한 갤러리의 짐을 모두 정리했다. 출국을 불과 사흘 앞두고 온몸에 멍든 나를 돌아볼 틈조차 없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시차 적응에 실패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컨디션이 만신창이였지만 다섯 식구의 삼시 세 끼를 챙겨야 했다. 1월 5일부터는 아이들 학교가 개학했고, 세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했다. 게다가 한국의 계엄 상황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뉴스를 확인하느라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었다. 아마 성경 속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몸이 아파도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문득 오래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다. <디 아워스>. 줄리안 무어, 메릴 스트립, 니콜 키드먼이 주연으로 출연했고, 마이클 커닝햄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작품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이라는 소설과 울프 자신의 삶을 교차시켜 서로 다른 시간대를 정교하게 엮어 보여준다. 그중 줄리안 무어가 연기한 로라의 호텔 장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던 로라는 결국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선택하려 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아이들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한다. 나는 이 여자의 선택을 결코 쉽게 비난할 수 없었다. 엄마라면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어쩌면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가 무언중에 강요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적 역할을 통해 만들어진 ‘도덕적인 여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힘이 없기에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사회적 비난은 빗발친다. 영화 속 로라가 읽던 책은 『댈러웨이 부인』이었다. 주인공 댈러웨이는 무력감 속에서도 삶을 선택했다. 그러나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던 청년은 사회적 압박과 치료 강요를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택했다. 울프가 작품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 개인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로라는 결국 그 메시지를 따라 자신만의 선택을 했다.

수술이 끝나고 많은 이들이 나에게 “잘 회복하라”는 말을 건넸다. 귀가 아플 만큼 들은 말이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일도, 집안일도 내려놓아야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나는 세 아이의 엄마이고, 남편도 힘겹게 일하고 있다. 한국에서 여전히 운영 중인 갤러리도 있으니 해야 할 일은 산더미다. 내가 회복에 오래 걸리면 모든 일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아이들 밥은 누가 대신 차려주는 것도 아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종종 상상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는 내 모습, 혹은 진정한 쉼 속으로 들어가 영원의 문을 여는 순간을. 몸과 마음이 너무 무기력해지면 그런 생각은 저절로 떠오른다. 수술 전에도, 후에도 제대로 쉰 적이 없었는데 과연 앞으로는 쉴 수 있을까. 암 치료 후 요양원에서 일주

일에 4일을 쉬고 온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부러웠다. 그도 나에게 꼭 가보라며 추천해주었다. 한국에 가면 꼭 둘러보고 싶다. 10년 전 막내를 낳았을 때 2주간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는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았다. 아기는 젖만 먹으면 계속 잠을 자고, 내가 식사할 때는 아기를 대신 돌봐주니 마음 놓고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신경 쓸 일이 없는 그 시간이 참 좋았다. 이제는 자궁도 없으니 아기를 낳을 일은 없을 테고, 산후조리원 대신 요양원을 찾으면 되겠다. 지금의 내 몸에는 요양원이 어울릴 것이다.

고된 엄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랴. 한국의 출산율이 낮다고 사회가 호들갑을 떨 때마다, 나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면 속으로는 꽤재를 부른다. ‘그래 괜찮아, 안 낳아도 돼. 그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야.’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나도 남편도 고생이 많았다. 다시 하라고 하면 나는 못할 것이다. 셋을 낳겠다고 함부로 말했던 과거의 나를 찾아가 입을 꼬매고 싶다. 나의 친정엄마는 성격이 맞지 않는 아빠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나와 여동생 때문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했다. 그런 엄마를 보면 고맙다기보다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든다. 나도 엄마와 같은 여성이자 엄마이기에 더욱 그렇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9월에는 송은경 작가, 10월에는 이지수 작가와 초대전을 열었다. 두 분 모두 여성이고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오랫동안 작업해온 작가들이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틈틈이 작업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보통 내공이 아니다. 오랜 시간 교류하다 보니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송은경 작가와는 세 번째, 이지수 작가와는 두 번째 초대전이였다. 작가 노트에는 엄마의 역할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결국 많은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며 살아온 삶이 작품에도 배어날 수밖에 없다. 작가의 작업과 삶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작품이 된다.

송은경 작가는 10년 넘게 ‘주방 시리즈’를 작업해왔다. 쌍둥이 남매를 키우며 주방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종종 작업도 주방에서 하곤 했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

에는 설거지, 마트 카트, 두부, 고등어 등 일상의 풍경이 자주 등장한다.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을 주방에서 보내야 하는 주부라면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영감을 얻기 마련이다. 송은경 작가는 자신의 가정 속 역할을 애정하며, 그 손을 ‘거룩한 손’이라 부른다. 장을 보고,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며 똥을 치우고, 다시 붓을 들어 예술 작업을 이어가는 손. 그 손이야말로 거룩하다. 송은경의 작품은 젠더적 사회비판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 그것을 넘어선 작가만의 새로운 시선이 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손을 가진 이 작가를 찬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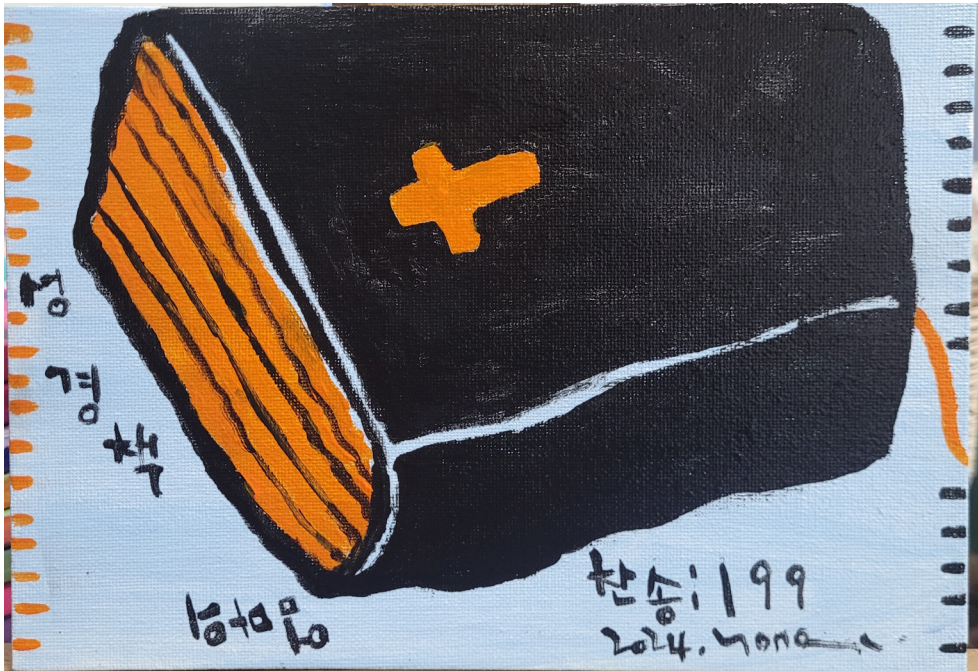
이지수 작가는 이번 작업에서 ‘둥지’를 그렸다. 나는 새 둥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생물학과 대학원 출신이지만, 실험동물 사육에만 익숙했지 그들의 자연 속 삶에는 무심했기 때문이다. 부모새는 새끼들이 둥지를 떠난 뒤에도 그 둥지에 머물지 않는다.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것을 ‘이소(離巢)’라 하는데, 부모새는 이후에도 새끼가 성장할 수 있도록 풀숲에서 함께 살아가며 도와준다. 둥지를 떠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사람도 동물도 완전히 홀로서기까지 부모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지수 작가는 부모님과 자신,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며 작업에 영감을 얻었다. 삶의 대부분을 가족과 살아왔기 때문이다. 산책길에서 만난 새들을 보며 자녀들과 함께한 긴 시간, 이제 독립할 아이들, 그리고 남겨질 부모로서의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나 역시 부모님을 떠나 15년 이상 살아왔지만, 아이들이 내 키를 훌쩍 넘어선 지금에서야 부모님의 허전함을 인식한다. 이제 그들의 주름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곧 내가 경험할 허전함이기도 하다.

나의 친정엄마도, 남편의 어머니도 모두 교회 권사님이다. 송은경 작가가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정리한 짐 속에서 발견한 성경책은 작품으로 남았다. 캔버스 위에 옮겨진 그 성경책을 보며, 우리 어머니들의 성경책이 떠올랐다. 나는 이미 오래전 성경책을 손에서 놓았지만, 어머니들의 성경책은 닳고 닳아 몇 번이고 새로 샀을 것이다. 그러나 낡은 성경책을 버리지는 못해 모아두었을 게 분명하다. 언젠가 그것을 정리하는 일은 나와 남편의 몫일지도 모른다. 살아가는 이유가 자식이 되고, 자식의 잘됨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마음. 우리 어머니들

37. 2025.10

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다. 물론 모든 어머니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운이 좋은 아이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화상통화로 엄마와 나의 얼굴이 나란히 비칠 때, 엄마는 나를 예쁘다고 말하고, 나는 나보다 21년 앞서간 엄마의 얼굴에서 나의 미래를 본다. 가끔 외할머니도 화면에 등장한다.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고 90세까지 산다면 저 모습일 것이다. 도망칠 수 없는 나의 미래, 결국 받아들여야 하는 미래다.

송은경 작가의 [엄마의 성격책]



난 어둠속에서 혼자 고통받아요.
깊은 어둠.

내 상태가 어떤지는 나만 알아요.

이건 내 권리에요.
이것은 인간의 권리죠.
교외의 질식할것 같은 마취제 속이 아니라
런던의 거친 삶을 원해요.
그게 내 선택이죠.

가장반항적이고 엉망인 환자도 원하는 치료법을 부탁할 순 있잖아요.
그래야 인간이죠.

삶을 회피하면
평화를 못 얻어요.영화 [디 아워스] 속 주인공 버지니아의 대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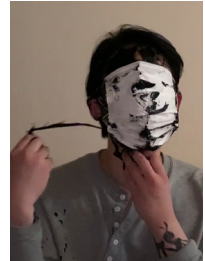
이지수 작가의 등지 그림 [everglow_등지]



같으면 완전히 같다

김 희 진

노동자



같으면 완전히 같다. 그래서 이 바닥의 곱팡이로 나는 돌아선다. 별로 진심이 아니었던 말들. 진심이 아니었기에 쌓인 죄책감들. 구린 마음으로 한 생각들. 매 순간 그것의 맥락을 생각하며/생각하면 다르다고 주장해왔던 것들이 모두 같은, 같아지는, 어떤 세계에 있다.

갓가지 기만으로 나는 오차를 주장하고, 주장한 데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리치고, 공허한 싸움을 위해 채비한다. 오히려 상대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나는 두려워 몸서리치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짓이긴 뒤에 같아지는 차이를 반복한다. 결국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동등함이나 같음에 관한 논증이 되었고, 그래도 내가 있었음을 잊지는 말아달라며 애처로운 울음을 감추지 않는다.

기다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잠시 참고, 말하지도 말고, 감각과 언명의 시차에 대해 생각한다. 그것을 메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닥치고자 닥치고 있다.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상상을 연속해서 한다.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

결국 어떤 욕망에 의해 나는 다시, 강박적으로 셀피를 생산하는 수학강사, 퍼포머가 되었다. 남기는 모든 이미지가 단순한 데이터로 간주되지 않는 자기 감각기록이고, 그 기록은 언제든지 복구/재생 가능하다는 믿음(가역적 신앙)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 신앙이 역설적으로 루프를 만든다. 신앙은 자주 그런 곳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온다.

사라짐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별일도 없이 쓰고 태운다. 셔터는 매번 중첩을 붕괴해 기저를 반복시키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나는 나를 재정의하므로 그것이 일련의/일종의 역행처럼 사용되지만, 사실 시간의 화살은 되돌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록이 가역적 신앙으로 부

37. 2025.10

풀고, 보정이 그 신앙의 의례가 된다. (아무도 없는 곳에 있는 사이비-주체) 더 선명하고, 더 오래 남게 만들려는 덧그림. 그렇게 이 신앙은 역설적으로 소멸의 감각을 불러온다. 확인해야 하기에. 결국 루프는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라짐을 더 자주 감지하기 위해 돌아가게 된다. 그것이 자기폐쇄종교적 굴레.











이제 행위(work)의 이론적 전환점은 명확하다. 소멸 불안은 삭제 대상이 아니라 다루어야 할 1차 동력이다. 나는 그 동력을 몸→행동→이미지의 순서로 재배치해, 이미지는 소멸을 막는 방파제가 아니라 소멸을 측정하고 존중하여 통과시키는 계기가 되게 한다. 여기서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루프의 이득을 낮추는 종결 연산이다. 오늘의 받침은 호흡과 발화. 이미지는 그 뒤에 선다. 사라짐을 지연시키지 아니하고, 사라짐의 단면을 모은다.

극극그그그, 모서리의 갈빗살 세워라.

라르리르리리루, 흐르는 갈래 휘돌려라.

아아으잉이아, 둔중한 원숨 감싸라.

소리는 선살 되고, 침묵이 바림천 된다.

나 귀발에 여울획 걸고, 목끝에 미늘숨 매단다.

추무대무개무수무초무디무겨무스무쳐무두무고무소무 



한량윤씨

게으른 창작자

철거 - 벽과 대청마루

근 현대에 들어와 건축의 다양해진 재료에 의한 마감 방식은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강해졌고,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가벼워졌다. 한옥의 집을 털어(?)보면서 이렇게나 많은 양의 돌과 흙을 붙들고 버텨왔는지 놀랍기도하고 대단하기도 했다.

그 당시 집을 짓는 재료는 돌, 나무, 흙, 물, 풀 뿐이다. 물론 쇠도 쓰인다. 거의 대부분은 친환경의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다.

라디오를 분해 해보면 반대로 라디오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지금의 내 경우에도 한옥을 지어 본적도 아니, 그 비슷한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거꾸로 분해와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한옥의 속살이 눈에 보이고 그려졌다.

우리나라의 쓸데없이 뚜렷한 4계절은 집을 짓기에 더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뜨겁거나 습한 여름의 더위, 비와 눈, 그것들을 모두 막아낼 집. 우선 대부분의 뼈대는 목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방습을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런 이유로 집을 짓는 땅을 더 높이 올렸고, 나무 기둥이 땅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게 돌이 받침대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단열이다. 지금처럼 단열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오로지 나무와 돌, 흙으로 쌓아 단열을 했다. 그 벽의 두께는 고르지 않았고, 그 격차는 약 30cm이상으로 차이가 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온돌은 그러한 기후적 생태에 적응하기 위해 생겨났으니, 어쩌면 결과론적 사고로 생각해 본다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안방 쪽, 그리고 부엌은 할머니가 계실 적에 한번 기름보일러로 바꿨지만 집의 맨 끝 방은 무쇠솥 아래 아궁이가 있는 방이다.

시골에 내려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궁이에 불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면 바로 방이 따듯해 지는 것이 아니라 한,두시간 정도 지나야 따듯해진다. 겨울에는 3시간도 더 걸리는 것 같다. 처음에는 무지해서 방이 왜 이렇게 안 데워지나 싶어, 계속해서 땀감을 넣었더니 결국 방바닥을 ‘빵꾸’ 뚫리게 한 웃픈 날도 있었다.

아랫목 장판이 뚫릴 줄이야.



‘타닥타닥, 딱. 탁 ... 딱 타닥’

한동안 시골에 내려가면 가마솥에 물을 잔뜩 부어놓고, 한쪽에 뿔감을 쌓아놓고, 조용히 ‘불멍’을 하며 술을 마시는 것이 삶의 낙이었던 적이 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골의 밤은 도시의 밤보다 더 쌀쌀한 기분이 들었다. 특유의 불의 일렁이는 움직임을 응시하다 보면 기분이 좋았다. 매주 불을 지피고, 보다 보니 뿔감에 따라 불 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걸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또 나에게 흥분되는 사건 중 하나였다.

“자, 오늘은 우리 수고 많았으니 좋은 뿔감하나 넣어줄게” 하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육송 같은 확실히 좋은 뿔감은 넣는 순간 향이 고급스럽다. 아궁이에 불이 사그라질 무렵에 방에 들어가면 뜨끈한 아랫목에 저절로 온몸이 흐물흐물해 진다.

아궁이의 불은 겨울 뿐만 아니라 한여름 습기를 잡는 데에도 매우 유용했다.

아궁이에 좋은 뿔감을 넣었을 때 소리도 향기도 더 좋다





해머로 흙벽을 터는 작업

한옥은 장단점이 분명하다. 나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기로 하고, 단점은 과감히 변화를 주기 위한 설계를 했다. (물론 서까래를 노출하는 것은 예외.) 가장 먼저 실내인 듯, 실외인 대청마루를 철거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이 또한 실내 면적이 넓었다면 굳이 철거를 하지 않고 사용을 했었을 수도 있겠으나, 이 집의 실제로 사용될 실내 면적은 너무 좁았다. 대청마루의 매력은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나에겐 실제 사용 되어질 면적도 중요했다. 대청마루를 철거하면 그 아래에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은 벽에 사용된 돌과 흙이 들어갈 자리이다. 불필요한 실내 벽 두 면과 서까래 노출을 위해 철거한 천장 흙을 털어내면 충분히 대청마루가 있던 바닥을 고르게 메꿀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철거와 동시에 바닥의 기초면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것이다.

‘흙 벽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내가 철거를 쉽게 생각한 이유는 ‘벽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흙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가벼운 쇠파치로 두들겨 보니 겉면의 흙이 ‘투두둑’ 하고 쉽게 떨어져 나왔다.

한마디로 ‘쿠쿠다스’ 같이 와사삭 깨어질 것 같아 빨리 진행해 버리자는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집은 무려 150년이 넘는 집이 아닌가! 나보다 100년 이상을 살아온 집에게 내가 너무 까불었다. 흙의 벽면은 벽돌만큼 단단했고 견고했다. 아니 오히려 돌이라면 깨져야 하는 데, 흙은 깨지지 않았고, 질겼다. 작업은 깨뜨리는 것이 아닌 결집된 덩어리를 조각을 내어 밀어 넘기는 방식이 된다. 해머로 내려치기도 하고, 앞이 뽀족한 연장으로 긁어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손으로 뜯고,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다.

흙 벽 안에는 천장에 있던 나뭇가지나 엮은 수수깡이 제법 나왔고, 중간에는 일제 강점기때의 신문조각도 발견되었다.

대청마루는 철거를 시작 할 때부터 고민을 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대청마루에 쓰인 고재를 처음부터 재활용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뜯어낼 수가 없었다.

마루 한 장 한장을 지렛대를 활용해서 뜯어 보려 했지만 워낙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을 시도 해 봤지만 허무하게 쪼개져버리기만 했다.

그 시점에 아빠의 고향 친구들이 (희수 큰 딸래미가 고향집에 와서 고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작업하고 있을 때 방문해 주신적이 있다. 변변치 않은 작업 도구들로 잡아 뜯고, 때리는 모습을 보시더니 도와주시겠다고 함께 팔을 걷어 부치셨다.

이 기회에 작업 중인 마루에 대한 고민을 논의했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마루를 통째로 잘라서 들어내는 방법으로 전체를 두 덩어리로 나누어 톱으로 끊어 내었더니 금방 마루를 들어낼 수 있었다.

이 작업은 성인 남성 3명 이상의 힘이 필요했고 그 일을 아빠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고희(古稀)의 아버지들은 아직 아주 젊다는 것을 느꼈다.

대청마루를 걷어낸 공간은 성인 무릎까지 낮은 땅으로 움푹 파여진 모습이었다.

우리는 계획대로 빈 공간에 벽의 흙과 돌을 채워갔다. 정말 신기하게도 거의 비슷한 양만큼 벽은 땅이 되었다. 원래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마루였던 고재는 굉장히 무거웠다. 손이 달고, 발로 밟고, 비비고 눌러져 오랜 시간동안 마루로서의 시간은 이제 해방이 되었다.

반질반질해져 더 단단해진 마루를 한 쪽으로 세워냈다.

다녀가는 사람들마다, 고재가 좋다며 버리지 말라고 한다.(당연한소리!) 혹시라도 누가 우리가 없는 사이에 가져갈까봐 한동안 노란색 리본으로 묶어놓고, 가져가지 말라는 쪽지까지 붙여놔었다.

세워놓은 마루, 아니 이제 마루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만들지를 계획중이다. 🐷

흙, 짚, 나무, 돌로 만들어진 벽면





단단히 엮어 있는 마루바닥 고재

마루를 철거 도와주신 아빠와 아빠친구들





밀면이 꼭 부산에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부산에 내려가면 밀면을 먹고 온다. 부산은 비엔날레 때문에도 있고 또 좋아하는 여행지이니 종종 내려가다 보니 어느덧 방문한 밀면집이 적지 않다. 사실 밀면 자체가 엄청나게 맛있기는 힘든 음식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한다. 아니 충분히 맛은 있지만 요즘처럼 웬만한 음식들이 다 맛있는 시기에, 어떤 한계점이 명확하다고 해야할까. 그러다 보니 요즘은 전처럼 새로운 밀면집을 찾아 방향하거나 하지 않고, 인근에 마음에 들었던 집을 방문하고는 한다.

영도에 있는 이 밀면집은 두번째 방문하는 집이다. 처음 방문하였을 때 “우와! 대단해!”같은 맛은 아니었지만 물이던 비빔이던 듬뿍 들어있는 배와 오이(나는 오이는 못 먹는다)의 인심이 마음에 들었었다. 딱 종다에 가까운 소박한 맛이, 때때로 한번씩 생각나는 그런 맛. 양은 또 어찌나 많은지 먹고나서 서울로 출발하면 도착할 때까지 배가 꺼지지 않는다.

나는 가면 비빔을 먹는데 가오리 회 무침이 곁들여 있다. 특유의 고기썩는 식감이 밀면의 쫄깃함과 매우 잘 어울린다. 물밀면도 고기 국물이 담백하니 참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약향이 진한 곳들도 있는데, 다 매력이 있지만 이집의 고기국물은 그다지 약하거나 너무 강하지도, 적당한 위치에서 은은하게 존재감을 뽐내기에 참 마음에 든다.



<월간 피그헤드랩>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내 콘텐츠 사용 등의 문의는 피그헤드랩에 우선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피그헤드랩>은 무가치이며 온라인, 문화 공간 등에 무료 공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필진을 환영합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Monthly Pigheadlab, 2025. 10 / 37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https://www.pigheadlab.com/>)

※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단체 및 장소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 인스타그램 DM가능

이번달 참여 필진 : 김희진, 김혜현, X, 이채연, 한량윤씨